

http://dx.doi.org/10.17703/JCCT.2022.8.6.167

JCCT 2022-11-20

##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관련요인

### Factors Influencing the Adaptation to the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 who Experienced a Non-face-to-face Semester due to COVID-19

김미영\*, 김윤아\*\*, 변은경\*\*\*

Kim, Mi Young\*, Kim Yun Ah\*\*, Byun Eun Kyung\*\*\*

**요약** 본 연구는 원격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참여자는 B와 G시의 간호대학생 127명을 대상으로 SPSS20.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학생활적응능력에 대해 회귀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학업성적, 대인관계가 43.5%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원격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며, 전공에 대한 만족도와 학업성취를 할 수 있는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대학생활적응,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degree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life who experienced a non-face-to-face semester due to COVID-19 and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at adaptation. Methods: Nursing students were surveyed from March 1 through 31, 2021; and data from 127 respondents were analyzed. For data analysi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PSS WIN 20.0 program. Results: Nursing student adaptation was explained by Stress ( $\beta=-.36$ ,  $p<.001$ ), Ego-resilience ( $\beta=.29$ ,  $p<.001$ ),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 $\beta=.16$ ,  $p=.017$ ), Performance ( $\beta=.17$ ,  $p=.022$ ) and Personal relations ( $\beta=.14$ ,  $p=.037$ );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was 43.5%. Conclusion: As the interaction changed from non-face-to-face space to face-to-face space due to distance learning, it was found that Stress, Ego-resilience, and satisfaction with the major had an effect on college life adaptation.

**Key words** : Adaptation to College Life, Ego-resilience, Stress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교육부는 코로나19 안정될

때까지 집합 수업을 지양하여[1] 2020학년부터 시작된 전면적인 원격수업은 2021학년도 2학기까지 지속되었다. 간호교육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재유행으로 원격수업의 비중이 증가하여[2] 대학마다 차이는 있지만,

\*정회원,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제1저자)  
\*\*정회원,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정회원, 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참여저자)  
접수일: 2022년 9월 23일, 수정완료일: 2022년 10월 25일  
게재확정일: 2022년 11월 1일

Received: September 23, 2022 / Revised: October 25, 2022  
Accepted: November 1, 2022  
\*\*Corresponding Author: loveani4@naver.com  
Dept. of Nursing, Kaya Univ, Korea

실습교과목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원격수업 실시되었다. 이렇게 원격 수업으로 전공에 대한 만족도와 학업성취는 학교보다는 사이버 공간에서 익숙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3]. 이런 원격수업에 대한 질을 탐색한 연구에서 학습자의 만족도 뿐 만 아니라 교수자에 대한 신뢰감과 학습자 간의 관계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 이에 원격수업을 1년 간 경험한 간호대학생이 사이버에서 학교라는 공간으로 옮겨 온 후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스트레스는 인간이 경험하는 생활환경에서의 혼란이 개인의 항상성 유지를 위협할 때, 이러한 위협에 대해서 개인적 또는 대리적 대처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5]. 대학생은 다른 시기보다 많은 변화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를 잘 보내면 건강한 성인을 맞이할 수 있지만 적응에 실패하게 되면 가정 및 사회생활에 파급효과가 크다[6]. 스트레스가 가지는 특성을 이해하고, 건강한 대학생생활적응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하다.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연하게 반응하는 성향을 의미하며 좁은 의미로는 개인의 넓은 의미로는 내적, 외적 스트레스에 유연하고 융통성있게 적응하는 일반적 능력으로 스트레스나 역경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7].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잘 적응한다[8].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은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나[9], 원격수업 이후 학교공간으로 전환되었을 때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의 완충제이며,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하여 문제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10]. Friedlander, Cribbie, Shupak와 Cribbie, [11]는 사회적 지지가 좋을수록 학업성적, 대인관계, 대학생활적응 등이 높다고 하였다. 이에 대학생활적응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인 개인의 심리 내적 변인과 적응을 돕는 긍정적 변인에 관한 연구는 원격수업 이후 학교에 새롭게 적응해야하는 시기에 자아탄력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대학생활 만족이 35%로 대학

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며, 가장 큰 스트레스는 학업의 어려움, 생활 및 시간관리, 전공 등의 문제로 나타났다[12]. 대학생활적응은 생활의 전반적인 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는 시기로 보다 나은 성숙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관문이다[13]. 특히 학교생활에 적응하여 임상실습경험이 있었던 학년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과중하며 실습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부담감과 실수에 대한 두려움, 실습기간 중의 과제 및 실습일정 등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많은 부담감을 주고 있다[13,14]. 이미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이 원격수업 이후 다른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및 대학생활적응의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물론 대학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미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비대면 학기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및 대학생활적응정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및 대학생활적응 관계를 파악한다.

다섯째,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원격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및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규명하고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B시와 G시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전체 학년 중 1년 동안 원격수업을 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 3, 4학년 학생 중 비대면 수업이지만 교내실습을 한 경우는 실습의 특성상 포함하였다. 표본 수는 G-Power analysis 3.1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에 대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에서 3가지의 예측요인(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유의수준 .05, 효과 크기 .15, 검정력을 .95로 계산하였다. 그 결과 119명이 표본추출 대상으로 분석되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산출결과보다 더 많은 130부를 배부하였고, 불완전한 3부를 제외한 127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 3. 연구도구

### 1) 스트레스

대학생의 스트레스는 Chon, Kim과 Yi[5]가 개발한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를 Lee[6]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60문항이나 본 연구에서는 당면과제 영역에 해당하는 학업, 경제, 장애, 가치관 등 4개의 요인 총 27문항만을 측정하였다. 모든 사건은 부적인 사건만을 묘사하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Lee[6]의 연구에서 각 요인의 Cronbach's  $\alpha$ 는 .94였으며, 총 27문항으로 측정한 Kim[1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는 .91이었고, 본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6이었다.

### 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 척도는 Atsushi와 Motoyuki[16]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Resilience Scale)를 Jung[17]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6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Jung[1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834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88이었다.

### 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 척도는 Park[18]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척도를 Yoon[19]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정보적 지지 6문항, 정서적 지지 7문항, 평가적 지지 6문항, 물질적지지 6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25문항이며,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Yoon[1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8이었다.

### 4)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 측정도구는 Baker 와 Siryk[20]가 개발한 대학생활 적응척도(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Lee[21]이 수정, 보완한 것을 Kang[22]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정서적 적응 7문항, 학업 및 대학애착 6문항, 사회적 적응 5문항, 건강 적응 2문항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및 각 하부영역의 적응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ang[2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84~.89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66이었다.

##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이며, 대학의 간호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구두허락을 받았다. 연구자가 구글폼 URI주소를 보내고 자발적으로 설문에 응한 간호대학생에게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구글 양식상 동의를 구한 뒤 설문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본 연구에만 사용되며 설문응답은 익명으로 이루어지며, 연구철회는 언제든지 가능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음을 구두와 서면을 통해 알렸다. 이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참여자는 설문에 참여하였고, 설문지 작성에는 10~15분 소요되었다.

##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및 대학생활적응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또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및 대학생활적응정도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및 대학 생활적응정도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로 분석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86.6%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연령은 23세가 34.6%, 21세 이하가 30.7% 순이었다. 학년은 4학년이 38.6%, 2학년이 28.3% 순이었으며, 종교는 60.6%가 가지고 있었다. 건강상태는 '좋다'고 응답한 경우가 51.2%, '매우 좋다'고 응답한 경우가 29.9% 순이었다. 대인관계는 '좋다'고 응답한 경우가 57.5%로 많았으며, 지원 동기는 '전문직 취업'이 46.5%, '성적이 나 부모의 권위에 의한 타의'가 33.1% 순이었다. 전공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43.3%, '매우 만족한다'가 40.9% 순이었다. 학업성적은 '보통'이 39.4%, '평균 이하'가 31.5% 순이었고 경제 상태는 '보통'이 53.5%로 가장 많았다. 거주 상태는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55.9%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대인관계( $p=.005$ ), 전공 만족도( $p<.001$ ), 학업성적( $p=.010$ )에서 대학생활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대인관계가 매우 좋고, 전공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대학생활 적응정도가 높았으며, 학업 성적이 높은 경우 평균 이하인 경우보다 대학생활 적응정도가 높았다(Table 1).

#### 2. 대상자의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및 대학 생활 적응 정도

대상자의 스트레스는 평균 2.79점으로 평균 이하이었고, 자아탄력성은 평균 3.50점으로 평균 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보였다. 사회적 지지는 평균 3.78점으로 평균 이상이었으며, 대학생활 적응은 평균 3.14점으로 보통으로 나타났다(Table 2).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  
Table 1. Difference of Adjustment to College Lif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2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cademic stress	
			M±SD	t/F(p) scheff's
Gender	Male	17(13.4)	3.08±0.44	-.472 (.638)
	Female	110(86.6)	3.12±0.38	
Age (years)	≤21	39(30.7)	3.13±0.33	2.025 (.114)
	22	23(18.1)	2.94±0.36	
	23	44(34.6)	3.19±0.43	
	≥24	21(16.5)	3.14±0.40	
Grade	1	19(15.0)	3.13±0.39	.308 (.819)
	2	36(28.3)	3.07±0.40	
	3	23(18.1)	3.12±0.36	
	4	49(38.6)	3.15±0.39	
Religion	Yes	77(60.6)	3.16±0.37	1.703 (.091)
	No	50(39.4)	3.04±0.40	
Health status	Fair	24(18.9)	2.96±0.25	2.521 (.084)
	Good	65(51.2)	3.15±0.32	
	Very good	38(29.9)	3.15±0.52	
Personal relations	Fair <sup>a</sup>	28(22.0)	2.94±0.39	5.492 (.005)
	Good <sup>b</sup>	73(57.5)	3.12±0.31	
	Very good <sup>c</sup>	26(20.5)	3.28±0.50	
Application motivation	Involuntary	42(33.1)	3.15±0.39	1.753 (.177)
	Aptitude	26(20.5)	3.19±0.43	
	Professional job	59(46.5)	3.03±0.35	
Satisfaction to major	Fair <sup>a</sup>	20(15.7)	2.94±0.26	10.708 ( $<.001$ )
	Satisfaction <sup>b</sup>	55(43.3)	3.22±0.36	
	Very satisfaction <sup>c</sup>	52(40.9)	3.30±0.55	
Performance	Under <sup>a</sup>	40(31.5)	3.02±0.38	4.745 (.010)
	Average <sup>b</sup>	50(39.4)	3.07±0.33	
	Upper <sup>c</sup>	37(29.1)	3.27±0.42	
Economic status	Poor	21(16.5)	3.10±0.41	.075 (.928)
	Average	68(53.5)	3.13±0.36	
	Good	38(29.9)	3.11±0.44	
Living together	Home with parents	71(55.9)	3.04±0.41	1.580 (.210)
	Domitory	23(18.1)	3.23±0.39	
	Self-boarding	33(26.0)	3.12±0.37	

표 2. 대상자의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

Table 2. Degree of Stress,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Adjustment to college life (N=127)

Variable	M±SD	Min	Max
Stress	2.79(0.74)	1.00	4.64
Ego-resilience	3.50(0.58)	1.44	5.00
Social support	3.78(0.67)	2.33	5.00
Adjustment to college life	3.14(0.37)	2.22	4.27

### 3. 대상자의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및 대학 생활 적응관계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은 스트레스( $r=-.527, p<.001$ )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아탄력성( $r=.417, p<.001$ ), 사회적 지지( $r=.443, p<.001$ )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표 3. 대상자의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Table 3. Correlations of related Variables with Adjustment to College Life (N=127)

Characteristics	Stress r(p)	Ego- resilience r(p)	Social support r(p)	Adjustment to college life
	r(p)			
Stress	1			
Ego-resilience	-.308 (<.001)	1		
Social support	-.446 (<.001)	.566 (<.001)	1	
Adjustment to college life	-.527 (<.001)	.417 (<.001)	.443 (<.001)	1

### 4.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대학생활 적응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던 대인관계, 전공만족 및 학업 성적과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를 설명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하였다. 인구사회적 변수 중 대인관계(보통 기준), 전공만족(보통 기준) 및 학업 성적(평균 이하 기준)은 더미 변수 후 분석하였다.

분석 전 오차 항들 간에 자기상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Durbin-Watson 통계량을 구한 결과 1.656으로 기준 값인 2에 매우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아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는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 공선성의 문제를 검정하였을 때, 공차한계는 .79에서 .98로 기준인 10을 넘지 않아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설명력을 나타낸 변수는 스트레스( $\beta=-.36, p<.001$ ), 자아탄력성( $\beta=.29, p<.001$ ), 전공만족( $\beta=.16, p=.017$ ), 학업성적( $\beta=.17, p=.022$ ), 대인관계( $\beta=.14, p=.037$ )로,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이들 요인의 설명력은 총 43.5%였다. 그 중에서도 스트레스가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이었다(Table4)

표 4. 대상자의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Adjustment to College Life (N=127)

Variables	B	SE	$\beta$	t(p)	p
Stress	-.019	.004	-.36	-4.74 (<.001)	.000
Ego-resilience	.019	.004	.29	3.95 (<.001)	.031
Satisfaction to major*	.013	.005	.16	2.42 (.017)	.000
Performance*	.014	.006	.17	2.32 (.022)	.065
Personal relations*	.014	.006	.14	2.10 (.037)	
R <sup>2</sup> =43.5, F=18.51, p<.001					

\* Dummy variables

## IV. 논 의

본 연구는 원격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전공만족, 학업성적, 대인관계를 중심으로 효과성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스트레스는 평균 2.79점이며, 이는 같은 도구는 아니지만 코로나 이전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2.28점[2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이전 간호대학생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보이는 것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

자아탄력성은 평균 3.50점, 코로나 이전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2.88점[2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연하게 반응하는 성향이 함양되어 있기에 이를 더욱 강화하여 적응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지지는 평균 3.78점이었으며, 사회적 지지가 비대면 상황에서 대면 상황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확인되지 않았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은 평균 3.14점이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3.36점[24]보다 낮은 점수이며, 간호학과 첫 학기 대학생활 체험에서 당황과 걱정, 새로운 체제로의 적응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25]. 이 두 연구결과는 코로나 감염병이 없을 때 간호대학생에 대한 연구이다. 이 당시에도 간호학과 신입생,

편입생 대상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연구가 많았지만, 현재 코로나로 비대면을 경험한 간호학과 대학생활적응 평균 점수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도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이 대학생활적응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로는 대인관계가 좋고,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학업성적이 높은 경우 대학생활적응정도가 높았다. 코로나 이전 시대의 간호대학생의 연구[23,24,25]에서 전공에 대한 만족도나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자신이 선택한 학과와 전공에 열심히 하면서 자신의 적응력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스트레스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활적응과 스트레스에 관한 부적상관관계가 있다는 다수연구의 결과[26,27,28]와 일치한다. 그리고 간호대학생 중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9]와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한 것과도[30] 일치한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간호학과 특성의 교과과정과 함께 근본적인 원인을 확인하여 그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타과 대학생들에 비해 진로가 안정되는 반면, 전공과 관련된 국가고시나 임상실습교과목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으며[31], 학년단위로 전공에 대한 비중이 차이가 있어 학년별로 스트레스 원인을 파악할 필요도 있겠다. 또한 스트레스가 모든 간호학생에게 부정적인 대학생활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32,33],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도 긍정적인 대학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대학생활적응과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34,35], 이는 간호학과 특성의 내외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반응하여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V. 결 론

본 연구는 원격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다. 원격수업으로 인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대면공간으로 상호작용이 변경됨에 따라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전공에 대한 만족감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활적응을 강화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전공에 대한 만족도 증진 및 자아탄력성을 강화하여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도모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2020년의 코로나 첫 확산기 시점에서 원격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조사 대상으로 실시하였기에, 현재 익숙한 비대면 수업 경험이 있는 학생과는 상이할 수 있어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코로나 상황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어 가는 간호대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모든 측정변수들은 자기보고식 설문지에 응답한 내용만을 바탕으로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질적 연구 등으로 보완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ment of academic operation and support plan in the field of education to respond to COVID-19", 2020. 3. 2. <https://if-blog.tistory.com/10030>.
- [2] S.H, Lim, "Content Analysis on Online Non-face-to-face Adult Nursing Practice Experienced by Graduating Nursing Students in the Ontact Era",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Vol. 22, No. 4, pp. 195-205. 2021.
- [3] M,Y, Kim, and Y,A, Kim, "The Effects of Sincerity anf Empathy on Communication Ability of Nursing Student who Experienced a Non-face-to-face Semester due to COVID-19",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Vol. 18, No. 5, pp. 67-77, 2022.
- [4] M,J, Park, "Effect of Non-face-to-face Lecture Service Quality on Lecture Satisfaction and Professor Trust after the COVID-19 Pandemic : Focusing on College Students Majored in Korean Dance", *Korea Sport Society*, Vol. 19, No. 1, pp. 221-230, 2021.

- [5] K.K. Chon, K.H. Kim, J. S. Yi, "Development of the 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5, No. 2, pp. 316-335, 2000.
- [6] J.Y. Lee, "A Study on the Psychosocial Factor Influencing the Suicide Ideation of University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 Ju National University, KongJu, Korea, 2007.
- [7] A.S. Masten, J.D. Hubbard, S.D. Gest, and A. Tellegen. "Competence in the Context of Adversity: Pathways to Resilience and Maladaptation from Childhood to Late Adolesc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Vol. 11, No. 1, pp.143-169, 1999.
- [8] E.J. Ji, M.R. Bang, and H.J. Jean, "Ego resilience, communication ability and problem-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4, pp.571-579, 2013.
- [9] M.Y. Kim, and E.K. Byun, "The relationships of self-resilience, emotion expressiveness, achievement motivation, and problem-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6 No. 2, pp. 77-84, May 2020.
- [10] S. Cobb,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Vol. 39, No. 5, pp. 300-314, 1976.
- [11] L.J. Friedlander, J.R. Cribbie, N. Shupak, and R. Cribbie,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Stress as Predictors of Adjustment to University Among First-Year Undergraduate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Vol. 48, No. 3, pp.259-274, 2007.
- [12] E.W. Kim, and K.S. Jang, "Developing a Prediction Model regarding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8, No. 2, pp. 312-322, 2021.
- [13] J.Y. Kim, "Factors associated with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2015
- [14] N. Seyedfatemi, M. Tafreshi, and H. Hagani, "Experienced stressors and coping strategies among Iranian Nursing students," *BioMed Central Nursing*, Vol. 6, No. 11, 2007.
- [15] J.H. Kim.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trol and Health Promoting Lifestyle", *Journal of the Korea Academy of Psychological Type*, Vol. 17, pp.81-100, 2016.
- [16] O. Atsushi, N.N. Hitoshi, N. Shinji, and K. Motoyuki,.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adolescent resilience scale", *Japanese Journal of Counseling Science*, Vol. 35, pp. 57-65, 2002.
- [17] E.O. Jung, "A Validation of Psychological Resilience Sca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onbuk, Korea, 2006.
- [18] J.W. Park, "Study on work to develop social support scale", *Unpublished Docto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1985.
- [19] H.J. Yoon, "Adolescents' perception of daily stress and support of social network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93.
- [20] R.W. Baker, and B. Siryk,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31, pp. 179-189, 1984.
- [21] Y.J. Lee, "The Non-Residential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and Career Pla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1999.
- [22] M.C. Kang, "Students who participate in leisure activities with the social support self-elasticity and the impact on college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2013.
- [23] E.K. Byun and H.J. Yang, "Effects of Ego Resilienc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Mental Health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6, No. 4, pp. 85 - 93, 2020.
- [24] Y.H. Choi, and M.J. Chae, "Factors associated with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8, No. 8, pp. 419-432, 2018.
- [25] K.H. Kim, and E.H. Hwang, "Transfer-students' Lived Experience of the First Semester in the Baccalaureate Nursing Program : University Life Adjustment and Crisis Overcome", *Crisisonomy*, Vol. 8, No. 5, pp.123-142, 2012.
- [26] S.K. Kim, "Life Stress in Freshman and Adjustment to Colleg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0, No. 2, pp.215-237, 2003.
- [27] J.H. Ha, and H.I. Jo, "The Relationships among Perfectionism, Stress, the Ways of Stress Coping, Self-Efficacy, College Adjustment", *Korea Journal*

- of Counselin*, Vol. 7, No. 2, pp. 595-611, 2006.
- [28]E.M. Park, J.S. Park, and T.Y. Jung, "Effects of Stresses and Potential Moderators on School Adjustments of Undergraduates from North Korea", *Stress*, Vol. 17, No. 3, pp.285-293, 2009.
- [29]H.J. Choi, and E.J. Lee, "Mediation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9, No. 2, pp.261-268, 2012
- [30]E.A. Kim, "Convergence Study on Stress, Stress of Clinical Practice, Cop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9, No. 3, pp.91-99, 2018.
- [31]Y.H. Jo,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 by the grade of stress in the nursing students - effect of national examination on stres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19, No. 1, pp. 64-73, 2005.
- [32]E.H. Kim, and M.H. Suk, "Stress,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Health Allied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 29, No. 3, pp.463-473, 2015.
- [33]M.A. Park, "Self-leadership, stress on clinical practice, and stress coping styles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2009.
- [34]S.Y. Yoon, and S.H. Min,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piritual well-being on College adjustment in major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2, pp. 395-403, 2014.
- [35]Y.K. Kwag, "Effect of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5, pp.2178-2186, 2013.